

한국 가족의 양계화 현상에 관한 질적 연구

성 미 애(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임강사)

이 논문은 한국 가족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양계화 현상을 통해서 부계 중심의 한국 가족이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화 이후 한국 가족의 변화는 외면적으로 부계가족원리의 약화와 부부중심의 핵가족 이념의 강화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지만, 그 내면에서는 보다 복잡한 원리로 진행되어 일관된 한 가지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가족의 범주에서도 남녀 간 차이를 보이며, 모든 가족관련 가치관 연구에서 성별, 세대별 가치관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부계가부장제 가족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수준에서 편의적으로 인식, 행동하면서 가족간 갈등이나 가족문제를 유발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부계가부장제의 잔재가 어떤 측면에서 가족간 갈등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 가족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 것인지 양계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전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가치관이나 의식의 측면에서는 양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행동양식에서는 양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가치관이나 의식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노부모 부양, 제사, 상속, 입양, 향렬자 사용, 족보 기재방식과 존재 의미, 호주제, 부(父)와 모(母)의 성(姓)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 가족주의, 남아선호 사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행동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친척간 상호작용 빈도, 친밀감, 가족의례, 양가 부모 부양 수준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2004년 7월 8일부터 2004년 7월 29일까지 자녀가 있는 35세 이상 기혼남녀 17명(남성 9명/여성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35세 이상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이 집단이 소위 말하는 386세대로, 우리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인간발달 주기에서 볼 때 자신의 삶이나 가족의 삶을 성찰해 보는 중년기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양계화 현상의 다측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 그리고 연구방법으로 질적 연구의 심층면접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어떤 연구방법보다 질적 연구는 복잡한 현상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입장을 갖고서 발견을 중시하는 연구에는 적합하기 때문이다. 즉 한국가족에서 보이는 양계화 현상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어떤 일관된 양상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중층적인 구조를 이루면서 표면적인 측면과 심층적인 측면, 그리고 행동과 의식에서 어느 정도 불일치를 보인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다층구조적인 양계화 현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이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관되게 본 연구에서도 중층적인 양계화 구조가 나타났다. 즉 의식의 면에서는 여전히 부계가부장제 가족가치가 보였으나 개별 가족 수준에서 편의성 때문에, 그리고 여성이 처가에 친밀감을 가지면서 친족유지자(kinkeeper)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계화된 양상이 나타

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 제보자들도 부계제 범위 내에서 본인의 핵가족을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한국 가족은 아직까지는 부계가부장제 의식 내에서 불안정한 부중심 가족의 모습을 가지면서 양계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